車도 '장마대비' 하세요

침수땐 배터리부터 분리

올해 여름은 대기 불안정과 태풍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할 공산이 크고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4일 여름철 운전자가 차량 침수에 대처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차량 밑바닥까지만 물이 고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차량의 배터리 단자를 제거해야 한다. 이후 수돗물을 이용해 차량 밑바닥의 빗물로 더러워진 부위를 청소한 후 젖은 부위를 완전히 건조시킨다.

에어클리너 커버도 제거해 물이 유입되었는지 점검한 후 물이 유입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이상이 없으면 시동을 건 후 각 부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차량 바닥 위로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터리 단자를 제거한 후 견인차량을 이용해 가까운 정비업체로 옮겨야 한다. 이때 스스로 이동하려고 시동을 걸면 고가의 전기부품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침수지역을 통과할 때는 승용차는 바퀴의 3분의 1 이하, 트럭은 타이어의 절반 이하만 잠길 때 주의해서 통과한다. 이때 저속으로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한다. 속도를 높일 경우 물을 밀어내는 차량 앞부분의 수위가 높아져 차량 내부로 물이 유입될 수 있다.

침수지를 통과한 후에는 저속주행을 하며 브레이크를 반복해서 밟아 브레이크 장치를 건조시킬 필요가 있다. 브레이크 장치는 방수가 되지 않아 물이 유입되면 마찰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침수지를 통과하다 시동이 꺼지면 신속히 배터리 전극을 분리하고 안전지대로 견인해 컴퓨터와 전기부품을 보호해야 한다. 이후 전문 정비업체에 맡겨 차량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 비교

구분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삼성카드	현대캐피탈
특징	• 취급수수료와 차량 근저당 설정료 없음 • 대출이자 최장 40일까지 절약 혜택	• 중고차 및 대환자금도 취급가능 • 별도 지급보증 없이 기존 상품 대출한도 공유	• 경차, 하이브리드카 구매고객 0.2% 특별금리 혜택 • 코픽스 기준금리 도입	• 취급수수료,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 없음 • 카드 종류에 따라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 무이자 상품 출시 • 신차할부 고객 대상 차량가치보장할부 시행중 • 취급수수료와 근저당 설정료 차등
출시	5월	5월	4월	2009년 8월	가치보장할부는 6월
카드 캐시백	• 신용카드 결제시 대출금액 최고 1.5% 캐시백 • 전월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0.2~2.0% 포인트 통장 적립 • 취급수수료, 근저당 설정 없어	• 제휴카드로 결제시 최대 1.5% 캐시백 • 주유시 10만원당 최고 3만원 캐시백	우리 체크카드 결제시 매출액 1.5%까지 캐시백		없음
자동차 보험		에르고 다음카드 결제시 2만원 할인	제휴차 보험액 우리카드 결제시 보험료 할인		
대출 대상	직장인 및 자영업자 등 본인 소득 고객	신차 및 중고차 구입고객	직장인과 자영업자중 본인 소득 있는 고객	르노 삼성 제외 모든 브랜드 차량 구매고객	차량 구매고객
대출 금리	연 5.5%~5.95%	연 최저 5%대 초반	연 4.8~5.6%	연 8.2~8.7%	• 아반떼와 아반떼 하이브리드 무이자 할부 • 기타 차종 5~7% 저금리
대출 한도	최고 5천만원	최고 1억5천만원	최고 1억원		
대출 기간	최장 5년	최장 5년	최장 5년	최장 3년	최장 3년

새 차 고를땐 할부금융도 고르세요

'자동차를 사려는데 현금은 부족하고 할부금융을 이용하자니 상품내용이 복잡하고…'.

차량교체시기에 있는 운전자들의 고민이 늘고있다. 최근엔 신용카드사와 은행들까지 캐피털사들이 독점했던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이 열해지면서 업체들마다 내놓는 할부조건들이 양해졌기 때문이다.

〈기아차 K5〉

〈아반떼 하이브리드〉

업계 전문가들은 자신이 구매할 차종을 선택한 다음 은행과 카드사, 캐피털을 통해 할부조건을 받아본 뒤 상환시기나 금리부담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차 맞춤형 비교공시 시스템 활용**=지난 5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홈페이(www.crefia.or.kr)에 '자동차 할부 맞춤형 비교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별 할부 조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차량의 종류와 대출기간, 개인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각 여신금융회사의 취급조건을 비교할 수 있어 자동차 할부금융을 통해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원하는 상품을 손쉽게 고를 수 있다.

신차는 ▲차종(47개) ▲전체 차량금액 중 이용자가 현금으로 내는 현금구매 비율(10~30%) ▲대출기간(12~36개월)을 입력하면 된다. 중고차는 ▲신용등급(1~10등급)과 ▲취급수수료 부담 여부 ▲대출기간(12~36개월)을 입력해야 한다.

신용등급은 알기 위해선 공시 화면에 연결돼 있는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본인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 **은행·카드사… 저금리에 각종 수수료 면제**=은행권이 내세운 자동차 할부는 취급수수료와 차량 근저당 설정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우리V오토론'을 출시했다. 4~5%

차 맞춤형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금융사별 금리조건 한눈에 비교

기아차 36개월 할부 5~6% 금리
로체는 차량가의 10% 할인 제공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고 우리카드로 결제시 매출액의 최대 1.5%까지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신한은행도 은행권 선두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영업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월 '신한 MY CAR 대출'을 출시한 데 이어 5월에는 '신한 S-MORE MY CAR' 대출상품을 선보여 6월 말 현재 750여억원의 판매액을 올렸다.

취급수수료가 없어 할부금융사에 비해 2~5% 저렴한 6%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의 자동차 카드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정서 작성 없이 국산차 최고 5천만 원, 수입차 1억 원까지 임시한도를 부여받아 연 8.2~8.7%의 이율로 차량을 할부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이율은 다소 높지만 취급수수료나 근저당 설정료가 없어 실질 부담은 적은 편이다.

롯데카드는 '오토할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회원이 차량구매 시 필요한 만큼의 임시 한도를 부여받아 신용카드로 할부를 이용하는 서비스로, 취급수수료와 근저당설정료,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앴다.

은행과 카드사들이 이처럼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회원을 유치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 **캐피털사…저금리에 신상품으로 반격**=자동차 할부 금융을 주도해 온 캐피털사도 저금리와 신상품을 선보이는 등 시장 수성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현대차 구입시 무이자나 5~7%의 저금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아반떼는 최장 30개월 할부시 1200만원까지 무이자 할부로 이용할 수 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카는 할부금액에 관계없이 36개월까지 무이자가 적용된다.

기아차는 36개월 할부기준으로 차종별로 5~6% 금리를 적용해주고, 로체는 차량가의 10% 할인에 6% 저금리를 제공한다.

르노캐피탈의 경우 르노삼성 차량 할부 구매시 무이자에서 5.9%의 저금리 상품을 내놓고 있고, 삼성카드를 소지한 고객은 '선 포인트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자동차보험시장 잘 나가네

2분기 보험료 수입액 작년동기비 7.5% 성장

지난해 부진했던 자동차보험 시장이 올해 들어서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13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수입액은 2조92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조7226억원에 비해 7.5% 성장했다.

지난해 2분기 자동차보험료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호전된 실적이다.

이는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해 자동차보험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경기회복이 이어지면서 실적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와 대형사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에르고다음이 작년 동기 대비 21.1% 성장한 것을 비롯해 더케이(14%), 하이카다이렉트(11.7%) 등이 모두 급성장해 온라인사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7%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01년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2005년 10%, 지난해 20%를 돌파한 것에 이어 올해 말에는 시장점유율이 23%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형사도 약진해 LIG(18.7%), 현대(11.8%), 동부(8.5%), 삼성(8.4%) 등의 성장률이 모두 시장 평균을 넘어섰다. 동부, 삼성 등의 약진에도 온라인 부문의 성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하반기 자동차보험 시장은 상반기보다 더욱 신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